

“업무수행 하자 없다” Vs “흠결 많아 사퇴를”

수원 장안 전략공천 무게 안산 상륙을 경선 방침

여야 정운찬 인준 놓고 정면 충돌 조짐 야권 반대 공조... 28일 표결 앞두고 긴장

여야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할 조짐이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세종시 원안처리에 부정적인 정 후보자의 입장과 그의 도덕성을 문제삼아 지명철회 내지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직무수행에 큰 하자가 없다며 이르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 절차를 밟기로 했다.

특히 정 후보자 인준 문제는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간 정국 주도권 다툼의 성격도 있어 자칫 대치 정국 장기화에 따른 국정공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23일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이 대통령의 총리지명 철회 및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필요하다는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우재창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4일 소집될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특위에서 경과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기로 했다.

또한,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 표결이 실시될 경우엔 의원 총회를 다시 소집, 본회의에서 반대 투표를 하는 방안, 항의의 표시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퇴장하거나 실력 저지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와 함께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 등 야권이 ‘인준 반대’를 위한 공조를 본격화하면서 한나라당을 긴장시키고 있다.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은 이날 정 후보자가 병역 및 기업체 고문 겸직 논란, 세금 탈루 의혹 등 도덕적 흠결이 많고 정책능력도 미흡하다고 주장하면서 일제히 인준 불가 입장을 밝혔다.

야권 안팎에서는 24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반대하거나 28일 본회의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 박지원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당론으로 인준 반대 결정

임명동의 표결에서 인준 부결을 위해 공조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분만큼 우리 경제와 사회에 많이 관심을 갖고 연구한 분도 없다”며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국가발전에 필요한 분”이라고 강조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최고·중진연석

회의에서 “산적한 국정현안 해결을 위해 새 통합내각이 힘찬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요 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에서도 야당 시절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댔지만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처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 연호에 나서는 등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데 대한 고민을 하는 의원들이 있어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총리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정의화 의원은 “인사청문에 있어 여와 야의 잣대가 다를 수 없다”며 “선진국을 지향한다면 선진국 수준에 맞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재보선 준비 박차

민주당이 10월 재보선 준비에 다시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손학규·김근태 카드’ 불발의 충격에서 벗어나 조기에 후보를 공천, 승기를 잡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3일 오후 공천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수원 장안과 안산 상륙을 2곳에 대한 공천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공심위는 이미경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경기 도당위원장인 박기춘 의원, 신문식 사무부총장 등 7명으로 꾸려졌다.

수원 장안의 경우 손 고문은 공개추천한 이찬열 지역위원장을 전략공천하는 방안에 여전히 무게가 실려있지만, 해당 지역에 대한 연고를 둔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출신 김재두 국회의사관장 비서관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어 경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선 한나라당이 여성 후보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장상 최고위원을 전략공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안산 상륙을 경우 김영환 전 의원, 김재목 지역위원장, 윤석규 전 청와대 행정관이 경선을 하는 쪽으로 사실상 방침이 정해졌다.

민주당은 안산 후보를 확정된 뒤 진보진영 대표로 나선 임종인 전 열린우리당 의원과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민노당 권영길 의원과 진보신당 심상정 대표가 임전 의원의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뛰겠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수도권 두 곳 모두 쉽지 않다는 게 민주당의 자체 판단이다. 하지만, 여당의 경우도 거물급이 아니고 재보선 성격상 여당에 불리하다는 점에서 당력을 쏟으면 지난 4월 인천 부평을 재선거에서처럼 예상 밖의 낙승을 거둘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당 핵심인사는 “빠른 시일 내에 공천을 마무리하고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수도권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출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 및 기념사업을 총괄할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노무현재단)이 23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창립 발기인대회를 갖고 정식 출범했다.

이날 행사에는 참여정부 인사들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일반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노무현 재단은 이날 이사장에 한명숙 전 총리를 선임하고 이해찬 전 총리와 문재인 전 비서실장,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강금원 시그너스 회장, 정연주 전 KBS 사장을 포함해 9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했다.

또 문 전 비서실장을 상임이사 겸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이병완 전 비서실장,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등 노 전 대통령 참모 출신 및 정치권 인사 20여명과 황지우 시인, 이창동 영화감독 등 100여명으로 운영위를 꾸렸다.

한명숙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노 전 대통령은 실재하지 않았다”며 “우리 가슴에 난 이 상처를 뜨거운 열정으로 치유하고 재단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 갔던 그 길을 이어가려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운찬 청문회’ 스타는 강운태

누락 소득세 납부 실토·1천만원 용돈 폭로 끌어내

의 활동에 대해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가 연이어 치하를 보냈으며 동료 국회의원들의 박수가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정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당일에 누락된 종합소득세

1천만원을 냈다는 사실을 실토하게 만들었으며 Y업체 회장으로부터 1천만원의 ‘용돈’까지 받았다는 점을 인정토록 했다.

강 의원의 집요한 문제 제기에 정 후보자는 때로는 잘못을 시인하고, 때로는 즉답을 피하



면서 시종일관 곤혹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특히, 강 의원이 제기한 각종 사안들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에 중요증거자료로 채택되면서 국회 본회의의 인준 과정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사안이 경과보고서에 중요증거자료로 채택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기자 tuim@

민주당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이 다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무소속으로 18대 국회에 입성한 강 의원은 지난 7월 민주당 복당 이후에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 각종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맹활약, 정치적으로 ‘상종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강운태 의원은 ‘스타’로 부상했다.

정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의 강 의원

대박면업의 해법은 '김영' - www.kimyounq.co.kr

상위권대박 "실전문제풀이반" 대특강

0-110명즉원강

무료특강 시시책에 기초문법 개강 10월5일

편입영어 11월10일

김영면업학원

영광문예대학 11월 22일

신촌문예대학 11월 29일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광고

구분	소재지	면적	매각가	신청기간	신청방법
1	서울특별시 강남구	1,200㎡	1,200,000,000원	2009.10.1 ~ 2009.10.15	법원사무관
2	서울특별시 서초구	800㎡	800,000,000원	2009.10.1 ~ 2009.10.15	법원사무관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500㎡	500,000,000원	2009.10.1 ~ 2009.10.15	법원사무관
4	서울특별시 중구	300㎡	300,000,000원	2009.10.1 ~ 2009.10.15	법원사무관
5	서울특별시 용산구	600㎡	600,000,000원	2009.10.1 ~ 2009.10.15	법원사무관
6	서울특별시 마포구	400㎡	400,000,000원	2009.10.1 ~ 2009.10.15	법원사무관
7	서울특별시 강서구	200㎡	200,000,000원	2009.10.1 ~ 2009.10.15	법원사무관
8	서울특별시 강북구	100㎡	100,000,000원	2009.10.1 ~ 2009.10.15	법원사무관
9	서울특별시 강동구	150㎡	150,000,000원	2009.10.1 ~ 2009.10.15	법원사무관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120㎡	120,000,000원	2009.10.1 ~ 2009.10.15	법원사무관

광주지방법원 사법부서관 청문관